

글로벌 포인트

〈광장 특별호〉



〈특별호를 내며〉 광장의 언어
낙원은 없다, 망한 데서 시작하라: 민주공화국과 불화하는 젠더
도대체 왜 그렇게 할배가 싫은데?
비폭력주의자가 고민하는 광장의 '비폭력'
무력한 자들의 연대

차례

〈글로벌 포인트〉 특별호를 내며 ‘광장의 언어’가 새로운 정치로 구성되는 세상을!	01
낙원은 없다, 망한 데서 시작하라: 민주공화국과 불화하는 젠더	04
[육십 살 먹은 여자가 말하는 노인 이야기] “도대체 왜 그렇게 할배가 싫은데?”	08
비폭력주의자가 고민하는 광장의 ‘비폭력’	15
무력한 자들의 연대	19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웹진 〈글로벌포인트〉 광장 특별호

만든이들: 〈글로벌포인트〉 기획편집팀 [굴, 나영, 목련, 안팍, 채영]

glocalactivism.org • blog.jinbo.net/glocalpoint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길 14(사당4동 266-2) 3층
02-593-5910 • glocal.activism@gmail.com
국민은행 043901-04-156642(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벌 포인트> 특별호를 내며
‘광장의 언어’가 새로운 정치로 구성되는 세상을!

웹진 <글로벌포인트> 기획편집팀

흔히들 ‘87년 체제’를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87년’은 이전의 군부/독재정권과 ‘민주공화국’ 시대를 가르는 표상이다. 하지만 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이었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찰과 제안들조차도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 2016년, 우리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 ‘가부장적 통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사회의 총체적 파탄을 목도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담론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같다고 믿었다. 제도를 정비하면, 우리가 “공화국”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 대체 이들에게 ‘이상적인 정치의 무엇’으로 상정되는 ‘공화국’이란 무엇일까.

한 교수는 최근의 칼럼에서 “공화국의 최후 골간”은 “공공성”이며 이것은 “군인과 음부를 뜻했다”고 썼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과 국가 생명은 죽기 때문”이란다.¹⁾ 그런가하면, 민중총궐기 집회 무대에 선 김제동 씨는 “국가는 모두의 어머니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박정희 개발독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를 보며, 아마도 이제는 ‘죽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돌보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강인한 표정으로 세상을 주시하면서 한 손엔 공화국의 깃발을 들고, 두 가슴으로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며, 발치에서는 책을 읽는 다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속성이거나,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속성인 것은 아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며 희생적이면서도 강한’ ‘어머니 공화국’이란, 또 다시 가부장적 가족모델의 체제가 기대하는 여성의 상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무엇도 아니다. 어쩌면 공화국을 공화국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국가에 아버지 혹은

1) 박명림, 「민주공화국의 부활은 광장에서...사실상의 하야와 헌법적 하야」, 《한겨레》, 2016.11.11.

어머니의 상을 덧입히고, 그 보호나 돌봄을 받아 마땅한 ‘국민’의 자격을 끊임없이 갈라 온 이 사회의 익숙한 ‘습’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웹진 <글로컬포인트>의 특별호는 광장에 나온 수백만의 ‘우리’들 사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광장에서는 많은 이들을 만난다. 서울말을 쓰는 이도, 전라도 말을 쓰는 이도 있다. 수어를 쓰는 이들, 외국어를 쓰는 이들도 있다. 서로 다른 말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담고 광장을 떠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채우고 있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직 부족하다. 기왕에 박근혜 정권을 끝낼 시기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광장의 언어들”을 알 때에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광장에서

흔히들 하는 말로 본론을 시작하자.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public의 어원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이다. 국어대사전은 “공공”을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국가의 체제와 제도가 누구 하나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화국이다. 이런 말로 풀어 쓴 사람도 있다.

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운용, 유지되는가? 간단하게 말해 공화국이란 사회적 갈등이 제도 정치의 영역에서 말과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체제가 아닌가? 말로 하자는 것, 제도권의 영역에서 말로 타협하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체제,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주의자 안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다. 공화주의는 철저하게 제도의 운용에 대한 형식적 문제이지 정책 내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²⁾

그런 점에서 한국은 공화국이 아니고, 아니었다. — 저 글을 쓴 이는 공화국이었던 시기가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말이다. 단순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혹은 그 이전의 정권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소수의 뜻대로 권력을 휘둘렀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강원을, 사상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을, 성적으로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또한 장애인들을, 비-성인들을, 언제나 배제해 온 것이 한국의 역사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여지껏 “두루 관계되지” 못했던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야 말로, 모두가 ‘우리’ 안에 안주하고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주체들이었으며 ‘우리’를 구성하는 전제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해 온 이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우리는 ‘박근혜 이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다. 박근혜를 하나의 오점으로 생각하는 한, 그 오점을 지우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뿐이다. ‘포스트-박근혜 시대’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줄 모르는 한, 남는 것은 여전히 죽어 있는 공화국 뿐이다. 앞에서

2) 엄기호, 「공화국의 죽음과 새로운 시민의 탄생」, 《프레시안》, 2009.06.05.

인용한 대로 ‘공화주의는 철저하게 제도의 운용에 대한 형식적 문제’라면, 공화국은 영원한 거짓말이다. 제도에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한 말이다. “박근혜 이후”를 말하는 사람은 많다.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어떤 처세를 권하는 이도,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를 제안하는 이도 있다. 언론에 한 줄 글이나마 실을 수 있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형식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 경제 양극화 완화 같은 선에 머문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광장의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라는 오점을 지우는 걸레질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를 그리는 붓질을, 박근혜 이후를 조각하는 망치질을 해야 한다. 해야해야 할 것은 박근혜라는 한 명의 권력자가 아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 –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주의, 개발주의, 지역주의, 반공주의 등등을 함께 허물 언어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래서, 광장의 언어

시위는 축제다. 그러나 그저 구경하면 되는 축제는 아니어야 한다. 구경거리가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구경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연자 자신을 위해서여야 한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텅 빈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를 고민하는 짙은 말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승만의 시대에, 박정희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어느 것 하나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어쩌면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욱 말하려는 것이다. 상상해야 함을, 미래를 구상해야 함을.

혹자는 말한다. “광장은 앙시앵 레짐을 해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는다”³⁾고. 그는 그래서 직업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지 않고 – 비록 그것이 법적인 용어들로 정제된 것은 아니라 해도 – 어떻게 앙시앵 레짐을 해체할 것인가? 프랑스의 군중은 왕을 처형했다. 그것은 단순히 구시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새 시대를 여는 행동이었다.

장애인 혐오 없이, 여성 혐오 없이 박근혜를 내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장애인 혐오 없고 여성 혐오 없는 새로운 체제를 여는 일이다. 혐오 없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통용되는 하나의 세계를 여는 일이다. 그 시작은 광장 한 구석의 작은 무리일지언정, 그것이 무대에 전해지고 시위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여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광장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로 했다. 침묵하며 무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텅 빈 구호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각자의 새 시대 구상을 내어 놓기를, 그래서 토론하기를 바랐다. 박근혜 이후의 시대를 또 다른 구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세력이 되어, 새 시대를 맡아야 한다. 우리의 언어로,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살아 정치가 되는 새로운 ‘광장의 시대’를 열자.

3) 장덕진, 박근혜 이후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경향신문, 2016.11.24.



낙원은 없다, 망한 데서 시작하라: 민주공화국과 불화하는 젠더

이규리 / 웹진 <글로벌포인트> 기획편집팀

1.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그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 아내 폭력(가정폭력), 데이트 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은 그것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이 활발할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범죄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신고율을 토대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폭력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성과로 폭력의 가시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요즘 거의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들리는 노래다(<대한민국 헌법 1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을 ‘해치먹는’ 카르텔의 실상과 ‘비선 실세’ 논란까지 백만 명이 모이지 않는 게 이상할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드러나는 현실에 맞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매주 행진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민주공화국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두 이야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폭력으로 명명되기 시작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은 ‘네가 옷을 그렇게 입어서’, ‘당해도 싸다’, ‘네가 너무 예민하다’는 가해자의 언어에 맞서는 운동이기도 했다. 우리는 가해자와 ‘하나’로 묶일 수 없는 피해자의 다른 언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한 정치적 개념들을 만들어가며 싸워 왔다.

다시 돌아와서, 공화국(共和國)의 뜻을 생각한다. 사전적 정의는 ‘공화 정치를 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다. 한문 그대로 풀면 ‘함께(共) 화(和)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

(共)에는 ‘함께’라는 의미 외에, ‘한가지’라는 의미가 있다. 화(和)한다는 말은 서로 응한다는 말부터 사이가 좋다는 말까지 의미의 범위가 넓다. 이런 복잡한 의미들을 고려하면 ‘모두 하나로 모여 즐거운 나라’라는 의미가 가장 가까울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지만, 백만 명의 운집한 사람들 속에서 이 노래를 듣다보면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든다. 공화(共和)는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인 100만 명의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가?

3.

11월 초에 있었던 두 번의 집회가 끝난 후 SNS에는 광장에서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불쾌한 플러팅부터 사람이 많은 틈을 탄 신체 접촉, ‘여자가~’로 시작하는 모욕적인 말들, 진보를 참칭하는 남초 사이트에 올라온 ‘촛불 여고딩 XX하기’ 게시물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었다. 박근혜가 싫지만 박근혜를 닮년, 암탕, 온갖 ‘년’ 들어간 욕설로 비하하는 여성혐오적 행태 역시도 불편하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을 타자화하는 구호를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동시에, ‘성폭력 당할 걱정을 하며 집회에 나가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남성들의 지지하는 글도 올라왔다. 여성을 모욕하는 말들에 별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들도 많았다. 집회 주최측은 소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집회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사과를 했다. 나도 그날 성폭력 비슷한 것을 겪었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말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 박근혜를 욕하는 건데 왜 애먼 여성들이 발끈하냐는 반박, 공부할 시간에 집회 나온 청소년이 기특해서 기특하다는데 그것도 문제냐는 비아냥, 여성과 장애인을 멸시하는 욕설을 ‘민중’이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분노의 반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근엄한’ 질책까지, ‘진보’ 남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몇 가수들의 정권 비판 노래들이 여성 멸시, 비하, 혐오에 기대어 있다는 여성들의 비판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한다. DJ DOC의 <수취인분명> 노래 가사의 ‘미쓰 박’이 왜 부적절한 표현인지 조목조목 짚는 글에는 ‘친박페미’, ‘국정원의 사주를 받았냐’,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댓글이 달렸다.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가장 먼저,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은 중심 문제이고, 집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당하는 폭력과 모욕은 주변 문제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에 대한 폭력은 정권퇴진이라는 ‘대의’ 아래에서 별 것 아닌 문제라는 것이다. 불편하면 오지 말든가 참아라, DJ DOC가 무대에 서는 것이 불편하면 잠깐 나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는 아무말 대잔치에 어이가 없었다. 집회 참가자의 절반은 우리 소수자들과 그 친구들이었다. 이들이 전부 집회를 보이콧한다면, 그때도 ‘소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소수자들의 정당한 제기가 ‘분열 책동’이라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닮년을 비롯한 욕설이 불편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미 갈등하고 있으며, 문제제기는 갈등 해결의 첫 단추다.

4.

다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가 된 이번 촛불집회에서만 여성을 모욕하는 욕설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 대통령을 겨냥하는 여성멸시적 욕설

은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시절부터 있었고, 집회 대오 내부에서 여성을 타자화하는 문제는 2008년을 기점으로 여초카페를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 참가자들이 증가할 때부터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토론되고 있었던 문제였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 대중으로, 민중으로 묶이지만 여성은 그 속에서도 ‘여성’이었다. 위마드의 일부 유저를 중심으로 한, 남성 운동권들에 대한 강한 불신과 ‘편협’ 정서는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운동권 내부에서 여성 운동가들이 겪은 폭력을 다루는 페미니스트 전희경의 <오빠는 필요없다>는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주의자들이 꼭 한번씩은 읽고 공감하는 책이다.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명명되지 않고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5.

그렇다면, 말해지지 않던 일들을 말하게 된 지금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해진 것일까? 지금 여기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메갈리아의 등장 이후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했다. 운동권 식으로 말하자면 운동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일상언어로 말하자면 우리 편이 많아졌다.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메갈리아의 등장과 그 분화,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강남역 페미사이드 추모의 물결, Girls do not need a Prince 티셔츠와 그 이후의 논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OO_내_성폭력 해쉬태그 운동까지 1년 반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은 싸움과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남역 페미사이드와 #OO_내_성폭력 해쉬태그를 강조하고 싶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의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라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강남역 페미사이드는 동일한 시공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여성들이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여성을 집단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남혐’도 아니고 여남 간 분열 조장도 아니다. 그것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적극적 애도의 시작이다.

강남역 페미사이드를 둘러싸고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러웠다. ‘평등주의자’들의 “여자 남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의 우발적 살인이니 여성혐오가 아니’라는 모 좌파단체의 입장 발표(자기들이 뭐라고 입장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강남역 사건으로 논쟁하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글까지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훗날 더 자세하게 해석되어 기록되겠지만, 나는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이 모든 말들이 성별화된 일상적 폭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여성과 그 폭력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남성’들 사이의 갖아들을 수 없는 갈등이었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서로의 보완자가 아니라 대립하는 두 계급이다(sex class).

#OO_내_성폭력 해쉬태그 운동 역시도 그렇다. OO에는 문단, 체육계, 학교, 운동권, 가정 등등 사회의 거의 모든 집단이 해당되었다.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가족 관계나 성애적 관계로 맺어진 여성에게 그 권력의 산물을 분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 공사 영역의 구분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가정에 묶어놓음으로써 노동을 위계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그 구분 자체가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공사 영역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는 ‘홈 스위트 홈’이 여성에게는 노동 착취의 공간이고, 성적 학대의 공간이다. 공적으로 말해지거나 기록되지 않았던 이 폭력들이 해쉬태그 운동을 통해 드러났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실명이 공개되었고, 여성들의 폭로와 연대는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적 관계(면식범)에서의 폭력, 여성이 겪는 성별화된 일상적 폭력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우리는 운동의 새로운 전선을 긋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여성 문제’야말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진적인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6.

마지막으로, 들어줄 청중의 등장을 말하고 싶다. 강남역 사건과 성폭력 고발 운동이 우리에게 말할 무대를 열어주었다면, 그것은 들어줄 청중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말하며 들었고 들으며 말했다. 민중이 하나로 묶일 수 없고 공화가 가능하지 않듯, 여성도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여성들 사이에도 계급과 성 지향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여성’으로 환원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차용한다. 여성이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사고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성’으로서 겪는 구체적 경험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자매애는 그렇게 만들어진단다.

<강남역 10번 출구> 페미니스트 행동의 구호와 영화 <매드맥스>의 주제를 생각한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든 간다”와 “낙원은 없다, 망한 데서 시작하라”. 한번 ‘빨간 약’을 먹으면,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이고, 연결될수록 강하다.



[육십 살 먹은 여자가 말하는 노인 이야기]
“도대체 왜 그렇게 할배가 싫은데?”

최현숙 / 구술생애사 작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난 11월 초에 출간된 내 책 ‘할배의 탄생’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출간 20 여일 만에 2쇄를 찍었다는 소식에 우선 반가웠고, ‘도대체 뭐지?’ 싶기도 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축약되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 갈때기 정국에서, 인문사회서적으로 분류되는 ‘가난한 남성노인의 구술생애사’가 잘 팔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11월 19일자 한겨레신문의 2면 짜리 인터뷰 기사 “대한민국 할배들은 왜 꼰대가 되었을까“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993.html)가 판매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한다.

탄핵정국 난리판에 ‘할배의 탄생’이 잘 팔리는 이유

페이스북 친구들은 정치/문화적으로 유사한 성향이 높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일단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렸다. 폐친들의 댓글 중 본 글의 주제와 연관된 것들을 정리해 본다. (맞춤법 대강 무시^^)

■ 최현숙 : [와중에 자랑질 겸^^] 구술생애사가 많이 팔릴 거란 기대는 안하는데 '할배의 탄생'이 20 여일만에 2쇄를 찍었다네요. 흠;; 이유가 뭘까요? 이 난리판에.....

■ A : 트럼프!, 그리고 4%에 대한 궁금증. ㅎㅎ

독자로서 답을 구해보자면... 현재 쉬는 중인데... 안식년이라 페이스 북을 쉬는 것도 있지만 페이스 북 담벼락에 보이는 온갖 분석글 꼴을 갖추었으나 분석인지는 모르겠고 뭔가 훈계하는 듯 한 글을 보는 게 피곤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피곤함은 제가 지하철에서 만난 독고다이 노친네들에게서 느끼는 피곤함과 그다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마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궁금함이 너도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제일 간단한 일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피곤하고 싫고... 그걸 저자님께서 대신해 주시니 감사하고 뭐 그런... ㅋㅋㅋ

최현숙 : 근데 내 책을 읽고 나서 이젠 할배들 이야기 좀 참고 들어야겠다고들 하더라구요~~
편견을 좀 없애게 됐다고들...

A : 저도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실제로 들을 엄두는 여전히 나지 않아요... ㅋㅋㅋㅋ

최현숙 : 승질만 죽이면 됨!!!! ㅋㅋ

A : 그게 어려워요... 어릴 적부터 버릇없다는 소리를 꾸준히 들으며 늙어온 저로서는... 미션 임파서블... πππ

최현숙 : 난 사람들 내면에 할배에 대한 호기심/궁금증이 이미 있다는 생각. 근데 싫은 마음이 그 궁금증을 덮어버린 거죠. 사실 베이비부머가 65세 되는 내년 이후로는 노인들 숫자나 비율이나 소리들이나 투표율이 훨훨 더 높아진다고. 그 양반들과 잘 해보지 않고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더 캄캄해지는 거. 지금 박근혜 이것도 문제지만,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인들의 투표를 넘넘 중요하거든. 그걸 싫다고 귀 닫아버리면 갈수록 캄캄 보수로만 간다고. 그러니 노인들을 꼬끔이라도 왼쪽으로 꼬셔내기 위해서라도 그 양반들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해도 좀 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나의 소신...ㅎ 젊은 사람들 지네가 좀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만나야지 어쩔 거야?? 그러니 박근혜가 지랄쳐서 노인들 마음까지 돌아서고 있는 요즘이 그 절호의 기회!!!

■ B : 배제를 넘어서서 혐오에 가까운 대상화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아요. 밀양 행정대집행 때 보면 "평생 1번만 찍더니 꼴좋다~ㅋㅋㅋ" 류 글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났었거든요. 좀 옹호하는 거 같지만, 해방이후 한 세대 남짓의 시간들은 주체적인 시민이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봐요. 국민총동원체제였고 가시적 양적 성장이 집단성찰을 가로막았고.....

최현숙 : 저도 혐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 그 양반들은 젊은 것들한테 더 화가 나는 거고. 가난도 문제지만 배우지조차 못하셨으니 정치적 깨달음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극히 소수만이죠. 저는 빈곤계층의 노인 중 정치적 올바름을 고민하는 분들의 생애사를 좀 써보고 싶어요. 생애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정치적 /역사적 주체가 될 수 있었는지 세세히 알고 싶어서요...^^

■ C : 음...일단 개인적으로 요즘 '노인'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본 영화가 윤여정씨 나오는 '죽여주는 여자'이기도 한데... 그네들이 어떤 삶을 거쳐왔고, 그 삶에서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만들었고, 그 상처가 지금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노인들, 특히 남성 노인들은 대체로 접근하기가 힘든 느낌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손주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세대, 그니까 제 부모세대도 그래서, 부모

님한테 노인세대의 이야기를 물어봐도 아는 게 없으시거든요. 책을 보니 편견이었던 거 같지 만요 ㅎㅎ 그런 의미에서 요즘 '5%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책으로 옮겨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의식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삶이라는 서사를 긴 호흡으로 유연하게 풀어내서 좋았어요 ㅋㅋ 재미 포인트도 곳곳에 있어서 막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구술사라는 형식을 좋아해요 ㅋㅋ 문학성과 사회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텍스트라는 느낌... 그 느낌을 잘 살린 책이었어요. 삶의 서사가 주욱 흘러가는데, 어떤 부분에 막 일부러 중점을 두지 않아서,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느낌으로...

최현숙 : 이젠 노인문제를 국가고 시민이고 특히 젊은이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삶으로서의 관심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심도 그렇고...

C : 세대 간 갈등 뿐 아니라 같은 세대 안에서도 요즘의 예를 들면 '일베한다'같은 말은 하나의 낙인이고, 그 낙인이 찍히면 아무런 말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은 지구 위에 같은 땅 위에 같은 사회 위에 살고 있고...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동시대인으로서 중요한 시도이고 윤리인 것 같아요

최현숙 : 조금 더 잇자면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를 확장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대일수록....^^ 제 출발은 호기심인 거 같아요. 윤리는 아마 좀 이후에 붙이는 명분 같구요...헤헤^^

■ D :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서'라는 책의 부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 E : 지난번 한겨레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책 소개할 때 '대한민국 할배들은 왜 꼰대가 되었을까?' 하는 문구가 확 땡기더라구요 내 생각엔 책 독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중년 여성들이 나이 먹은 꼰대 남자 뇌구조가 진짜 궁금해서 책 사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ㅋㅋㅋ 즉 녀자들이 가부장인간들이 하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사보는 거 아닐까요? ㅋㅋㅋ

최현숙 : 저자로서는, 할배 꼰대 그런 말들이 주인공 노인들한테 안 좋게 들릴 거라는 생각에 그 단어가 전면에 나오는 게 좀 걸리기는 했었는데...(책 전해드리면서도 설명을 길게 했다는...ㅎ) 그래도 핵심은 그거라는 생각에 그 단어들 사용을 수긍했걸랑요.

■ F :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보폭을 넓히겠다는 좋은 마음을 독자들에게서 최선생님이 꺼집어 내신 겁니다. 촛불처럼 좋은 사회가 될 꺼라는 조짐 같아 보입니다.

최현숙 : '인간에 대한 이해', 맞아요. 저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독자들에게도 그 노인들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겉모습으로 규정해버리는 것과 다른, 삶의 내력과 내면을. 타인을 이해해야 나도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같이 잘 살수도 있고. 근데 부자들에게 관심 쏟을 시간은 없으니 옳은 사람들에게만 관심 (이번 생에서는....^^)

■ G : 저는 누님 작업의 함의가 이렇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 행태에 관한 문화론적 접근에, 특히 담론 분석식 접근에 대한 엄중도 한 요인일 것 같아요. 이 꾸준한 작업, 존경합니다.

최현숙 : 학계 쪽이야 담론분석식 접근을 해야겠지. 근데 학계 안에서만 머무니 문제....그걸 잘 해석하고 가공해서 길거리와 골목의 언어로 풀어내줘야 하는데, 늘 그 괴리가 문제...우선 내 재미로 하는 일에 존경씩이나!! ㅋㅋㅋㅋ

■ H : 책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 부아가 치밀어 올랐는데(할배들이 너무 미워요 ㅠㅠ) 그나마 저자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주어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잘 나가는 까닭도 어쩌면 그냥 날 것으로 듣기에는 짜증나지만 귀 기울여 듣고 싶었던 이야기기를 잘 들려주신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장을 덮으면서 선생님의 내공에 감탄하고, 저의 밴댕이 같은 속알딱지가 문득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내공은 어찌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ㅠㅠ)

최현숙 : 오호~~ 벌써 다 읽으셨군요. 글썄.... 제 생각에는 밉지 않고 승질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거리두기를 잘 하는 거라는 생각이요. 내 감정이나 가치관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를 잘 관찰하여 알아내고 이해하고 싶은 호기심을 앞세우는 거. 저 양반은 대체 왜 저럴까....하는 궁금증....^^ 말씀하신 "이 책이 잘 나가는 까닭도 어쩌면 그냥 날 것으로 듣기에는 짜증나지만 귀 기울여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덕"이 아마 제 질문의 중요한 답이겠네요.

댓글들에 의하면 이 난리통에 책이 좀 팔리는 이유는, 박근혜 덕에 이어 트럼프 덕까지 있다는 거다. 독자들이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은, 이 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다. 2009년 이후 노인돌봄 노동현장에서 밥을 벌며 노인에 관한 기록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노인들의 구술을 근거로, 노인에 통상의 시선에 판지를 걸고자 한다.

노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노인을 ‘문제 집단’으로만 보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노년을 불안해한다. 그리고 이는 현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빈곤과 독거까지 겹친 노인은 불안을 넘어 두려움까지 갖게 한다. 두려움은 혐오의 뒷면이다. 선부른 동정과 시혜 또한 혐오와 차별의 이면(裏面)이다.

남들 보기에 어떤지 몰라도, 혹은 남들 눈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제 사는 맛에 산다.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 사는 맛이든 이유들이 있어서 안 죽고 사는 거다. 빈곤한 독거노인들도 모두 제 사는 맛과 이유가 있다. 그 맛과 이유는 태어나서 팔구십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는 사연과 처지에 연루한다. 지금의 모습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빈곤한 독거노인들은 심지어 전복(顛覆, 뒤집어엎음)적이기까지 하다. 하긴 밀리고 쫓겨난 밀바닥과 바깥에서라면, 생각도 삶도 전복적이지 않을 수 없고, 자유와 해방의 김새마저 있다. 계속 빌어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훔쳐 먹거나 뺏어먹을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정 안 살고 싶으면 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노인들의 자살과 고독사는 무조건 막기부터 하겠다는 것은, 살아갈 놈들을 위한 면피다.

물론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절실하다. 하지만 복지는 권리의 문제다. 장애등급, 노인등급 등 온갖 등급을 먹여놓고 보는 정책도 문제지만, 시혜 역시 문제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

■ 보증금 없는 20만원 달세 쪽방에 사는 86세 여성 독거노인의 목소리

(한강 모래사장 위 천막촌에서 살다, 수재민의 집단 이주경로인 광주대단지 천막촌, 봉천동 달동네 하꼬방, 상계동 판자촌을 거쳐, 지금은 마포의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나는 평생 내 손으로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팔자였어. 지금이 외려 젤..... 머랄까..... 그래, 행복해. 그래가지구 인저....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속 편하고. 허리 아프네 무릎 아프네 해도 지금이 젤 편해. 쌀 걱정도 안하고, 누가 한 포 갖다 주면 먹고, 식구들 멕일 걱정 가르칠 걱정 없잖아. 옛날에는 저녁 먹고 나면 아침 걱정, 아침 설거지 하면 저녁 걱정. 그걸루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지금은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주고,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다 싶어서 통장 찍어 보면 안 굶을 만큼은 들어 있더라구. 굶게 생겼는데도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지 멀, 하하하. 아무리 늙구 없이 살아도 무릎하고 틀니만 있으면 살만 해. 어디서 머 먹으러 오라 그러면, 틀니 끼고 나가야 할 거잖아. 무릎 더 망가지면 집으로 가져오라 그러지 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구, 내 꺼 없으면 남의 걸루 살면 돼. 나더러 목소리 크다고 죽은 영감이랑 애들이랑 평생 머라고 했는데, 나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살아서 멧힌 게 없어, 하하하"

폐휴지 모으는 노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들 체면 생각해서 체발 좀 하지 말라는 자식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폐휴지를 모아 팔 이유와 맛이 그 노인들에게는 있는 거다.

■ 그럭저럭 살만하고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는 82세의 여성노인의 목소리

(누군가 버린 유모차를 주워서, 그걸로 폐휴지를 모으러 다닌다.)

"아니 지네가 머 용돈을 제대루 주기를 해 어째? 지네 살기도 바쁘면서. 준다구 하드래도 머 하러 놀아? 죽으면 썩을 몸. 동네 첩피하다구 체면 어찌구 하매 하두 지랄들을 해서, 껌껌할 때만 나간다니까. 위험한 거도 위험한 거지만, 그러느라고 낮에 가야하는 단골 가게들이 다 끊어졌어. 이르게 가꾸 모아서 손주들 용돈두 주구 할마시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며느리 병원 입원했을 때도 내가 한 봉투 내밀었고, 아들한테두 가끔 담배 한 보루씩 사주구 그래. 받기들은 잘 하면서 맨날 그만 좀 하라구 난리들이야."

■ 자식네와 따로 살며 폐휴지를 모아 사는 75세 독거 남성노인의 목소리

(이 양반은 마포 독막로 대로에서 만날 때마다 폐휴지로 나온 만화책이나 잡지, 소셜책들을 재밌게 읽으면서 ‘니아까’를 끌고 간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니, ‘지네가 알아서 피하겠지’ 한다.)

난 이거 안하면 못살아. 새끼들 있다고 생활보호(국민기초수급자) 그거는 안된대고, 노인연금 그 이십만원만 하고 새벽에 쓰레질(노인 공공근로) 해서 나오는 이십만원이 다야. 이걸 해야만 방세 내고 병원 가고 하지 안 그러면 턱두 없어. 찡피하고 말게 머 있어? 내 몸 움직거려서 먹고 사는 건데. 불쌍하게 볼 것두 없구, 재활용품 값이나 좀 올리라 그래. 나 하는 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좀 돈을 올려줘야지. 맨날 나쁜 거 만드는 일이나 돈을 많이 주구 말이야.

빈곤한 독거노인을 보고 속이 시끄러우면, 우선 자기 속을 들여다볼 일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듯 노인들에게도, 선부른 동정은 혐오나 자기불안에 기인한다. 우리 같이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사회에서, 까놓고 말해 ‘빈곤한 독거노인’은 많은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상상하는 자신의 미래다. 늙음과 가난에 대한 동정과 혐오는, 자신의 나이듦과 가난을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감정이다. 덜 늙은 게 다행이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욕망들의 자기방어적인 투사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궁심을 견지할 만큼의 물질은 필요하고, 가난은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함께 마련하고 싸울 문제다. 당사자 앞에서는 동정과 시혜를 보이다가, 돌아서서는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며, 냉큼 ‘돈이 최고’라는 결론으로 돌아가 버릴 일이 아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면(욕망을 벗어났든 욕망이 삭제됐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정상이테올로기? 옳고 그르고 낙인이고 말고를 떠나, 끼고 살 수 없는 상황이다.

■ 기초수급자로, 쪽방 건물의 옥탑방에서 사는 79세의 남성독거노인의 목소리.

(3개의 암을 가지고 있고, 40대말 가족과의 단절의 원인인 ‘함께 바람핀 여자’와 계속 연애 중이다.)

“불효소송인가 하는 그 방송 봤지? 그거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구, 하하하. 만고에 내가 젤로 속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달라는 놈이 있기를 해, 보채는 년이 있기를 해? 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어. 기왕 연락이 끊긴 거, 자식하고도 차라리 안보고 사는 게 신간이 편해. 자식들한테 연락이 오면 수급 짤릴까 봐 오히려 겁난다니까.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호적에는 개네들이 내 밑에 있잖아. ‘단절’인가 먼가를 증명하랴구 해서, 글도 모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있는 놈들은 있어서 불효소송이니 머니 지랄들이고, 없는 놈들은 없어서 또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고. 그런 세상이 돼 버렸어.

갈수록 노인들이 정치권들을 결정할 거다.

아무리 싫어하고 피해봤자 노인들의 수적 비율은 점점 커질 거다. 소위 ‘베이비 부머’의 시작인 6.25 종전(1953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내후년이면 만 65세가 된다. 지하철이고 공

원이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노인들은 이미 물려와 있을 거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공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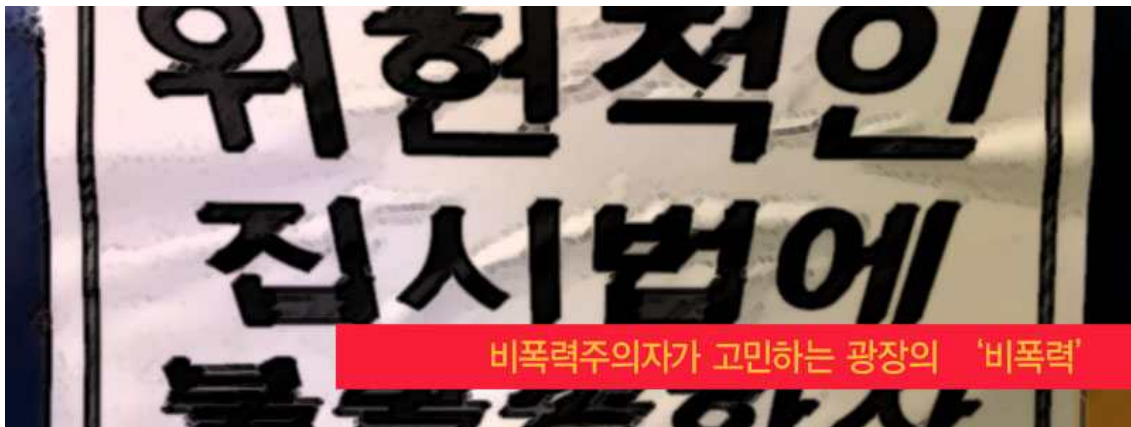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은 가장 성실한 ‘한 표’라는 거다! 초고령화 사회일수록 노인들의 표가 정치권을 결정한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불길하게 예감되는 ‘박근혜 이후에 또 있을 절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소통해서 꼬셔야 한다. 노인들 표 때문에 선거는 매번 망하고, 중간 중간 촛불집회만 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박근혜덕에 노인들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친구한테 집회가자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노인들도 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4%를 놓고 마저 욕을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노인들과 잘 해볼 일이다.

하나 더. 할매는 왜 안 미워하나?

노인돌봄현장에서 살면서 보니, 보수 정치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는 할배보다 할매가 더 심하다. 그런데도 여성주의 진영에서조차 ‘보수 할매’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여성노인을 정치적인 주체로 보지 않거나, ‘맞불집회’ 등 눈에 띄이는 것만 문제 삼는 태도다.

다행히 요즘은 할매들도 기가 막히단다. 어디 가서 혼자 몰래 욕이라도 실컷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 이 난리판에, 독거 할매들과 둘러앉아 ‘온갖 년’을 다 끌어다 붙이며 욕 잔치를 벌렸다. 입에 착착 붙는 할매들의 쌍욕들을 나는 따라만 했을 뿐이다. 여성학자 권김현영도, 욕심 넘은 여자들은 ‘여성혐오’니 ‘장애인혐오’니 ‘동물혐오’니 신경 쓰지 말고, 맘대로 욕해도 된단다. 절호의 기회에 함께 욕을 하면서 할매 할매들의 마음을 살 일이다.



비폭력주의자가 고민하는 광장의 '비폭력'

나동혁 / <전쟁없는 세상 World Without War> 회원

나는 비폭력주의자다. 태생적으로 곱디고운 정서를 가져서 비폭력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병역거부를 하고 내 안에 내재된 남성성과 폭력성에 대해 성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비폭력주의자가 되었다. 말이 대체로 명령형으로 끝난다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의 폭력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할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자 돌아온 답이었다. 항상 상대를 고압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장의 서술어 하나 고치는데 한참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신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억지로 눌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자연스러워졌고, 어느새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다. 비폭력을 좋아한다는 말과 비폭력주의자라는 말은 다르다. 이 글은 요즘 한국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고 있는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2차 촛불집회에 갔을 때 골목길을 따라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갔다. 그곳이 최전선(?)이었다. 조금이라도 청와대 가까운 곳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비슷한 생각으로 모인 사람이 이삼백 명 정도 있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고 나면서 구성이 바뀌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발언이 시작되었다. 누구는 애국가를 부르자 했고 누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고 했다. 더러는 애국가가 불편하다고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발언이 길면 짧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불편한 단어가 들어가면 박수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룰을 정해가며 스스로 광장을 만들어갔다.

그런데 그 날 최고의 갈등요인은 비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몇 사람이 경찰차벽을 넘어가려 하자 차벽위로 경찰들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내려오라 했다. 누군가는 프락치라고도 했다. 차벽에 오른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모일지 모른다. 오늘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차벽에 오른 몇 사람을 이유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찰 간부가 일부 시민들과 함께 비폭력 운운하는 장면도 나왔다. 혼란스러웠다. 평소 그렇게 외면 받던 비폭력 저항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은

내내 불편했다.

비폭력이란 뭘까?

현재 한국사회 통용되는 비폭력이란 말은 개념이 너무 왜곡됐다.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인 시민불복종은 법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법을 어겨서라도 싸우자는 거다. 시민의 정의가 법보다 우선하니까. 부패한 권력은 대개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정치인, 재벌, 검찰, 보수언론 등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비등해지면 더러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숙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체로 위협받지 않는다.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불복종은 뜻있는 시민들이 정상적 통로로는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호소가 거부당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을 주장하여 추진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일어난다.” 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형식상 불법이 될 수밖에 없으나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 등을 구현하려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비폭력 투쟁의 사례를 들어보자. 비폭력의 상징으로 인정받는 간디의 경우 평생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는데, 그 중 많이 알려진 것이 소금행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소금 생산과 판매는 전적으로 영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다. 그 통제는 소금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도인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 소금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저항하고자 간디는 소금을 스스로 생산하겠다고 단디 해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처음 몇 십 명으로 시작한 행진은 마을과 마을을 지나며 계속 불어나, 단디에 이르렀을 때는 행렬이 2마일에 이르렀다. 결국 육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소금법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간디 자신도 투옥되었다. 하지만 비등하는 국제여론 때문에 결국 그 이듬해 소금법은 폐지되었다.

이 투쟁은 간디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절대 평화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법도 동원했다. 하지만 간디는 그냥 걸어갔다. 사람들은 때리면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갔다.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니까.

그런가하면 흑인민권운동의 서막을 알린 몽고메리 버스투쟁은 어떤가.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는 흑인이 버스에 타는 경우 좌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었다. 심지어 만석이 되어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거부하면 강제 하차 당했다. 1955년 3월 2일, 당시 15살이었던 클로텟 콜빈이 백인 남자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항의로 로자 파크스는 조례를 거부하는 직접행동에 들어간다. 이 단순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으로 이어졌고 흑인민권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 조례는 폐지되었다.

‘비폭력=합법=국가가 정해 놓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란 등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이나 검찰, 경찰 등이 설정해놓은 프레임이다. 광우병 촛불집회 초

반을 떠올려보라. 저들이 불법이라 말하고 잡아가면 닭장투어라 조롱하면서 기꺼이 잡혀가던 그 용기가 정당성을 키웠고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비폭력 투쟁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더 좋은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온 결과물이며 대부분 다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왜 비폭력을 주장하는가

우리가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서다. 모든 싸움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이기기 위해 비폭력을 고민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정서, 언론과 경찰의 공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 비폭력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차벽도 넘을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고 점거나 봉쇄도 할 수 있다. 비폭력 저항은 권력자들이 말하는 질서유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경찰병력을 물리력으로 이기는 게 가능키나 한 일인지가 의심스럽고 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내 기준에서 차벽을 넘어가는 건 전혀 폭력이 아니다. 강제집행 들어오는데 스크럼 짜고 버티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백만 명이 모여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권력자들은 혼란스러워진다. 우리는 경험을 늘려가며 무엇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면 된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토론하면 된다. 이를테면, ‘차벽을 넘어가면 청와대로 갈 수는 있나? 그 과정에서 대부분 연행될 게 뻔한데 그냥 몇 명이서 청와대 앞까지 가면 뭐 할 건가?’ 이런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 그렇게 다수가 연행을 각오하고서라도 왕창 넘어가면 당연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말릴 수도 있다. 아무튼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이 설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면 폭력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으로 비폭력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주도하는 저항을 하기 위해서다. 80, 90년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제 화염병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본인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폭력 프레임에 시달려 온 역사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온전히 저항이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행위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형성된 공론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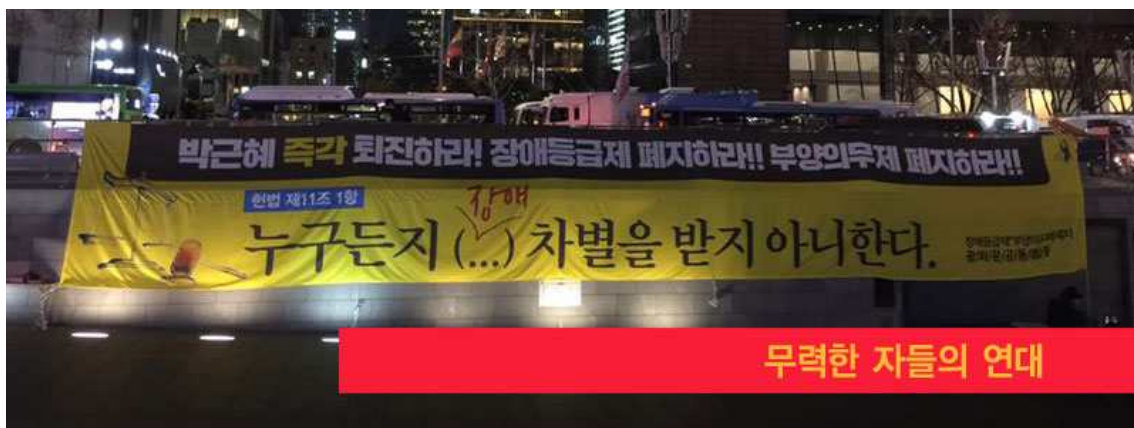
비폭력, 평화시위를 다시 생각해보자.

비폭력은 갈등을 감추고 다 좋게 좋게 지내자는 게 아니다. 갈등 해결수단으로 타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쓰기보다 다른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가끔 집회를 가보면 경찰들도 똑같은

시민이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자 이러는데,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등한 시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백 번 양보해 강제로 끌려간 의경이야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병역거부를 하라고 까지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경찰간부들은? 저 부역자들 누구 하나 양심선언하거나 처벌 받은 경우가 있나? 아이히만도 공무원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니 다 불쌍하고 어쩔 수 없다고 봐주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나? 자발적 부역자와 권력자들은 어떻게 처벌하나? 공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을 적으로, 범법자로 여기며 권력자 하수인 노릇만 해 온 경찰의 역사가 있다. 개개인에게 증오를 품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도 평화시위 난리를 치니 꽃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걸 또 의경들이 안됐다고 대신 떼어준다니 이 정도면 강박이다. 권력자를 절대 불편하게 만들 생각 없이 썩은 권력을 도려낼 수는 없다. 잘못된 국가와 시스템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면 의경을 걱정해서 스티커를 떼어줄 게 아니라 의경을 시위현장에 내모는 국가 시스템과 경찰 우두머리를 손봐야 한다. 의경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줘야 한다. 애초에 의경의 역할에 대해 성토해야 하고 최대한 의경이 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부당한 시스템에 부역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애초에 고민은 모두가 함께, 이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무력한 자들의 연대

안팎 / 웹진 <글로컬포인트> 기획편집팀

나의 집회들

집회에 처음 간 것은 2005년 3월이었다. 반전평화의날. 폴리스라인 안에서 질서정연한 행진을 했고 무대엔 연예인이 올랐다. 운동은커녕 정치에도 관심은 없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그 다음으로 집회에 간 것은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느지막히 도착한 나를 향해 누군가 달려 왔다. 지난번 집회에서 안면을 튼 이였다. 손으로 감싸쥔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진압하는 경찰에게 맞아 생긴 상처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축제 같은 집회도 가능한데, 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일까. 아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생각조차 않는 정부를, 이렇게라도 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진압하려 드는 경찰을 아는 데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기억에 남는 집회들이 몇 개 있다.

공사를 마친 청계천을 개장하기 얼마 전, 청계천변 장애인 접근권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길을 가는 이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며 한참을 붙잡고 설득했다. 문도 열지 않은 천변에 내려가 소리를 지르고 위를 올려다 보며 피케팅을 하고 스프레이로 구호를 새기기도 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부산에서 열린 APEC 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행진은 두 층으로 쌓인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멈췄다. 밧줄을 걸고 컨테이너를 끌었다. 다행히 속은 비어 있었다. 경찰이 계속해서 막았기에 목표한 곳까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고비는 넘겼다. 부산 시내 곳곳을 다니며 구호를 외쳤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구호를 새겼다. 나는 ‘실천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미FTA 반대 집회는 서울 곳곳에서 벌어졌다. 어디를 가든지 모른채 투쟁국장을 따라다녔다. 말 그대로 몰랐다. 어디를 가든지 투쟁국장만이 알았다. 여러 단체들이 ‘택[tactic]’을 짜고 서울 곳곳에서 거리를 막았다. 경찰이 도착하면 도망쳐서는 다른 곳을 막

았다. ‘뺨다비’라는 방식이었다. 빨라야 했으므로, 지하철 개찰구는 뛰어 넘었다.

2008년 촛불집회 때의 일이었다. 경찰 방패에 몸을 맞대고 서로 밀고 있던 나는 갑자기 뒷줄에서 뺨이 나온 손에 잡혀 경찰들 사이로 끌려 들어갔다. 경찰은 진압을 시작했다. 한 간부가 밑에 사람이 있다고 대열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크게 다쳤을 것이다. 이미 몇 차례 뺨이 안경이 부러진 참이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크게 다치지 않고 나왔지만 몇 시간 뒤엔 물대포에 쫓딱 젖고 말았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용산에서 명동까지 행진했다. 명동에서는 투석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보도블럭을 뜯어 경찰을 향해 던졌다. 경찰은 잠시 밀리는가 싶더니 결국 강경진압을 했다. 한 친구는 경찰이 되던진 돌에 머리가 찢어졌고, 다른 친구는 군화발에 뺨이 안와 골절을 입었다. 이번에도 나는 안경을 잃어버렸을 뿐이니 피해는 미미한 편이었다.

그때랑은 달라

2005년 4월의 집회 후, 잠시 나는 갈등했지만 싸우기로 했다. 경찰을 따돌리고 청계천변에 내려갔고, 방패 장벽을 뚫고 진물을 점거했다. 거리를 막는 것은 일상적이었다. 동원된 경찰 개개인을 공격하는 일은 피했지만,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주저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방패로 찍으려 들면 발을 들어 방패를 찼다. 때론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가끔씩이지만, 우리는 경찰을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수년간, 나는 집회의 면면을 싫어했다. 경찰 한 명을 끌어내 짓밟는 사람들을, 진압 병력이 아니라 그저 때가 되어 순찰을 돌고 있었을 뿐인 순찰차 앞유리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들을, 경찰에게 날계란이니 까나리액젓이니를 던지는 사람들을, 나는 탐탁치 않아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 한 가운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집회에 덜 나가게 되었다.

나는 늘 소위 ‘조직 대오’에 속해 있었다. 때로는 방침을 정해 줄 사람이, 때로는 어떻게 싸울지 논의할 사람들이 있었다. 달라진 것은 2008년 촛불집회 때부터였다. 주말에는 ‘조직’에 속한 모두가 나왔지만 평일엔 혼자 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 혼자 보는 풍경은 달랐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밤을 새지만 하는 일이라곤 대개 거리 공연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침이 되면 경찰들은 일렬로 서서 거리로 밀고 들어왔고,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속수무책 밀려났다.

혼자 보기 때문에 다른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늘 조직에 속해 다른 조직에 속한 이들과 함께였다. 내가 목적지를 모른 채 서울 곳곳을 누비듯, 내 옆에 있던 다른 단체 사람들도 목적지를 모른 채 서울 곳곳을 누볐다. 내가 속한 단체만으로 뚫을 수 없는 수의 경찰 병력에 길이 막히면 다른 단체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2008년의 어느 평일 새벽, 광화문 대로에서는 나도, 내 옆에 있는 이도, 모두가 혼자였다.

이 ‘혼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창 집회에 다녔던 그때랑은 다르다. 투쟁국장들끼리 회의해서 짠 ‘택’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커녕, 단일한 의견을 갖지조차 않는 무리다. 이 ‘혼자’들의 무리란 건 말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수 년을 보냈지만, 그 고민만은 내내 하고 있었다.

간단한 것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혼자이지 않도록, 뜻을 모을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운동의 시작이고 끝이므로, 다른 고민은 어쩌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모인 백만 명의 사람들 중 내가 몇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박근혜가 몇 월에 해야해야 할지에 대해서조차 뜻이 갈리는데, 당장 연행을 각오하고 저지선을 넘자고 - 그러나 그 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몇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무력해진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그저 분위기를 쫓아, 사람들이 가는 곳엘 가고 사람들에게 멈추는 곳에서 멈출 뿐이다.

무력한 자들의 연대

어쩌면 ‘즐거웠던’ 나의 ‘폭력 집회’ 경험을 되새기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무력해진 나에 대한 소외로 이야기를 옮겼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소속이 다르거나 아예 소속이 없는 백만 명이 함께 ‘군대처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므로 (또한 그래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무력할 것이다. 적어도 내가, 내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 백 명만이 외로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단 행인들과 뒤섞인 천 명 혹은 만 명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한, 나는 내내 무력할 것이다.

내가 무력해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나쁘지 않은 출발점이다. 학생운동 단체의 대표였던 내가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건넨 말과, 지금 여기 수많은 혼자들의 사이에서 평범한 혼자일 뿐인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모두가 무력한 혼자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평등하게 토론하는 관계가 말이다.

물론 모두가 똑같이 무력하지는 않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트랜스젠더퀴어와 시스젠더, 한국인과 외국인(특히 백인이 아닌), 청소년과 비청소년, 청년과 중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이들 모두 광장에서는 무력한 혼자지만 혼자들이 만나는 순간 둘 사이에 숨겨져 있는 무게차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 더 무력해져야 한다고. '조직'이 갖고 있던 힘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에서 다수자로서 갖는 힘을 버리고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지금까지의 토론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경찰의 저지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토론을 예로 들어보자. 그저 경찰 저지선을 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답답한 것이 아니다. 이 체제 내에서 법이 갖는 무게를 생각지 않고서 그저 준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혹은 사다리를 갖고 와도 차벽을 넘을 수 없는 이들을 생각지 않고 그저 넘는 것이 능사인 듯 말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다. 준법이라는 말이 갖는 무게, 폭력투쟁이라는 말이 갖는 무게, 이런 것들을 우선 버리지 않고서 우리는 평등한 토론을 할 수 없다. 서른 해 전 집회를 조직했던 경험을 권위 삼아 내세우는 한, 평등한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여자와 아이는 뒤로 빠지라고, 싸움은 성인 남성들이 하겠다고 하는 한,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를 점거한다 해도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시작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 무게들을 없애기 위해, 우리끼리 싸우는 것 말이다. 광장의 무대에 수화통역을 요구하는 것, 무대의 혐오발언들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 -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들 말이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도 함께 했던 '페미존' 사전집회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무게를 가진 자들은 도처에 있다. 박근혜를 그저 몰아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 무게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될 뿐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한 '박근혜 이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무게들을 없애야 한다. 서로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어, 새로 시작해야 한다. 누구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연대로써 비로소 강해지는 그런 연대가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무력한 자들의 연대를. 기존의 체제에 힘입어 갖고 있는 무게들을 먼저 버리고 스스로 무력해지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를, 그 무게를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쫓아가, 함께 무력해지도록 싸우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를 말이다.